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1. 기본정보

학과	국제통상학과	이름	김XX
파견국가	프랑스	파견도시	낭트
파견대학	Audencia Business School	파견기간	2023/8/31-2023/12/22
귀국여부	O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i>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i></p> <p>Audencia는 낭트에 2개의 캠퍼스를 가지고 있는데 저는 그 중 Atlantic Campus로 파견되었습니다. Atlantic Campus는 경영 단과대학이라서 학교 규모는 작은 편입니다. 우리 학교 단과대 건물의 1개 정도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교 주변에는 크게 뭐가 많진 않지만, 간단하게 밥을 먹을 수 있는 식당들이 있고, 학교 5분 거리에 트램역이 있어 시내로 가기에 편리합니다. 또한 Crous 기숙사 근처에 위치해 있어서 오고 가기 편리합니다.</p>
2023-2학기 수업	<p><i>본인이 수강한 과목, 각 과목에 대한 평가를 적어주세요.</i> <i>예) 수업내용, 수업방법, 과제, 수업준비, 추천과목, 비추천과목 등</i></p> <p>1) Strategic Management (비추천)</p> <p>본 대학에서 이미 들었던 수업들과 내용이 제일 비슷했던 수업이었지만, 반대로 제일 어려웠던 수업이었습니다. 제가 알던 내용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의 기업의 전략 분석 방법들을 다룹니다. 처음 접하게 된 이론들이 많은 것과 그 모든 내용들을 온전히 영어로만 이해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이 수업이 어렵게 느껴진 것 같습니다. 수업은 교수님 두 분이 2주씩 번갈아가며 진행하시는 수업입니다. 과제는 수업 전 Case Study를 한 번씩 예습해오는 것이었지만, 자율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시험은 중간고사는 퀴즈 2번으로 대체되고, 팀별 기말 발표 1번, 기말 필기시험 1번으로 진행됩니다.</p> <p>2) Digital Marketing (추천)</p>

	<p>프랑스인 교수님이 진행하시는 수업입니다. 프랑스인들의 영어 발음은 알아듣기 힘들기로 이미 유명한 만큼 수업 때 수업 자료를 보지 않으면 수업 내용을 놓치기 일쑤였지만,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에 시각 자료를 많이 활용해서 저희의 수업 흥미도를 높이려 노력하시는 모습이 드러났던 수업이었습니다. 시험은 중간고사 없이 팀별 기말 발표 1번과 필기 시험 1번으로 봅니다. 중간고사가 없는 만큼 기말 때 공부량이 많았지만, 크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특히 기말 발표 때 세계적인 기업 중 하나를 정해 특정 국가에서 디지털 마케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문제점을 찾아 solution을 제안하는 내용이었는데, 각기 다른 국가에서 온 친구들이 모여 자신의 국가에서 나라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마케팅을 진행하는 것을 알게 돼 흥미로웠습니다.</p> <p>3) Business Simulation (추천)</p> <p>팀별로 한 기업이 되어 한 학기 동안 엑셀 프로그램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고 피드백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또 다음 생산량을 정하는 것이 반복되는 수업입니다. 이 수업 또한 중간고사가 없고, 기말 때 레포트만 제출하면 되는 형식입니다. 처음에는 룰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매 수업시간마다 팀원 친구들에게 미안함을 느끼며 들었던 수업입니다. 하지만, 이 수업을 통해서 프랑스 친구들과 친해지게 된 계기가 되었고, 처음에는 힘들 수 있지만 한 번 룰만 이해하면 게임을 하듯이 들을 수 있는 수업입니다. 또한 교수님도 수업에 적극적이셔서 추천하고 싶습니다.</p> <p>4) French (추천)</p>
<p>프로그램 운영</p>	<p><i>외국인 학생을 위한 지원현황</i> 예) 오리엔테이션, 교환학생 참여 프로그램, 담당부서, 담당자명, 상담 프로그램 등</p> <p>1) 오리엔테이션 학기 시작 전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학교 포털 사이트 사용법과 수업 평가 방식, 학교 구조 등등을 설명해줍니다. 학교 생활에 적응을 하는 데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됐던 시간이었습니다. 참여는 자율이지만 되도록이면 꼭 참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p> <p>2) Erasmus 파티 매주마다 Erasmus 에서 주최하는 교환학생을 위한 파티입니다. 거의</p>

	<p>클럽과 같은 분위기라서 조금 시끄럽고 정신이 없는 분위기입니다. 저랑은 잘 안 맞아서 잘 참여하지 않았지만, 거기서 외국인 친구를 사귀 친구도 꽤 있어서 클럽 분위기를 좋아한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p> <p>3) 학생회 주체 프로그램</p> <p>Audencia는 교환학생만을 위한 학생회가 있어서 그 친구들이 한 학기 동안 여러 이벤트를 엽니다. 참여만 적극적으로 한다면 외국인 친구를 사귀는 것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이벤트 주제들도 다양해서 재미있었습니다. 이벤트가 많았던 것에 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지 않았던 게 아쉬움으로 남습니다.</p>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i>현지 기후 및 유의점</i></p> <p>가을 학기에 파견되었지만, 9월은 거의 우리나라의 여름 날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을을 생각하고 반팔을 많이 챙기지 않았는데 20도를 훌쩍 넘는 기온에 어쩔 수 없이 여름옷을 산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많이 춥지 않아서 두꺼운 아우터를 챙기기보다는 히트텍이나 레이어드 할 옷을 많이 챙기는 것을 추천합니다.</p>
안전	<p><i>현지 안전 상황</i></p> <p>밤 늦은 시각이나 새벽에는 기숙사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여자 혼자 다니기에는 조금 무섭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큰 봉변을 당한 적은 없지만, 조심해서 나쁠 건 없기에 밤 늦게는 되도록 돌아다니지 않았습니다. 저는 처음 유럽을 가 본 거라서 걱정도 꽤 했었는데 생각보다 안전하고 가끔가다 '니하오' 라고 말하며 지나가는 사람은 있었지만, 위협을 느낄 정도로 인종차별을 크게 느끼진 못했습니다.</p>

숙소	<p>학교기숙사() 홈스테이 () 외부 숙소(O) 기타() 기숙사 이름, 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p> <p>Audencia 는 학교 자체 기숙사가 따로 없기에 교환학생은 대부분 Crous에서 많이 삽니다. 13평 남짓한 방을 혼자서 사용하고, 화장실과 부엌 모두 방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다만, 가격적인 면에서나 시설적인 면에서 상당히 메리트가 큰 기숙사라서 그만큼 경쟁률도 높습니다. 저도 마지막에 겨우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Crous에서 연락을 받으면 바로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p>
식사	<p>학교 Meal Plan () 학교식당 개별이용 () 홈스테이 () 외부식당 (O) 직접 요리 (O) 기타 () 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p> <p>학교에 cafeteria 가 있지만 가격이 저렴하진 않아서 잘 이용하지 않고, 주로 기숙사에서 직접 밥을 해먹거나 가끔씩 친구들과 외식을 했습니다. 프랑스는 외식 물가는 비싸지만 식재료는 저렴한 편이라서 거의 해먹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과일도 저렴해서 과일도 많이 먹었습니다.</p>
교통	<p>통학방법, 시내교통, 주요도시 이동 관련</p> <p>학교에서 기숙사까지 도보 10분 거리여서 학교를 갈 때는 매일 걸어다녔습니다. 그 외에 시내로 나갈 때는 트램을 탔는데 처음 한 달은 정기권을 끊어서 다녔지만 그 이후로는 트램을 자주 이용하진 않게 되어서 Tan 이라는 앱을 통해 1회권씩 사서 이용했습니다.</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왕복 440만	출국 : 230만 / 입국 : 210만
Fees		
보험료	30만	인슈플러스 유학 한화손해보험 플라잉닥터스 타입

숙소	200만	
식비	200만	
교통비	10만	
책값		
기타1	여행 경비 400만	
기타2		
합계	1240만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미리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1) 옷

평소에 자주 입고, 편한 옷을 챙기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쁘지만 한국에서도 자주 안 입는 옷은 가서는 더 안 입게 되니 꼭 편한 옷들만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상의나 아우터는 가셔도 충분히 살 수 있지만, 하의는 기장이 맞지 않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상의보다는 하의를 많이 챙기길 추천합니다.

2) 1인용 전기밥솥

냄비로 밥을 해먹는 친구들도 많았지만, 냄비밥은 평소 요리를 잘 안 하시는 분이라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져가서 쓰고 버리고 오는 걸 추천합니다. 저는 1인용 전기 밥솥 하나 가져가서 정말 잘 썼습니다.

3) 1인용 전기매트

프랑스는 보일러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겨울에 바닥에서 찬기가 올라와 전기매트 없이는 춥습니다. 많이 무겁지도 않기 때문에 하나 가져가서 따뜻하게 생활하는 걸 추천합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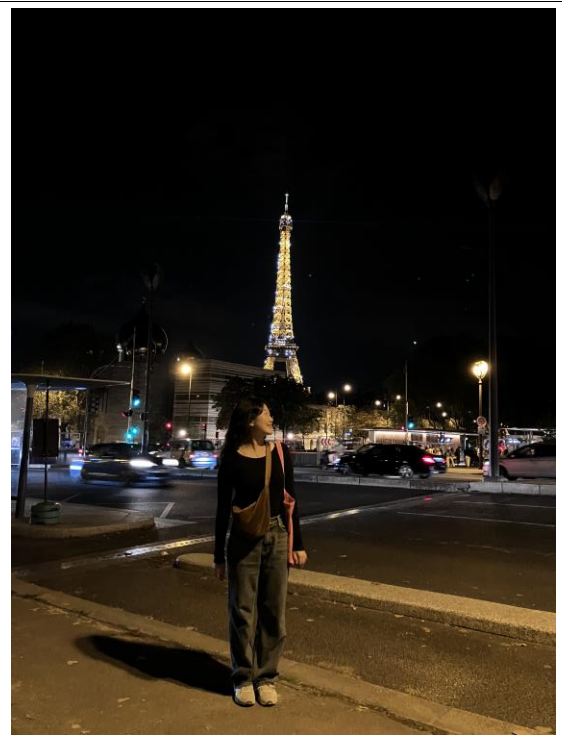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분량 자유)

금전적인 부담이 있긴 하지만, 그걸 감안해서라도 꼭 대학 생활 중 교환학생 한 번은 다녀오시는 걸 추천합니다. 학교 주변에서 혼자 자취하는 것만으로도 외로움을 많이 탔던 저였지만, 교환학생을 다녀오고 나니 그런 시간들이 저에게 필요한 시간들이었고, 그 동안 나에 대해 공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환학생을 고민 중이시라면 저는 무조건 다녀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가서 들이닥치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이겨내 보면서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또 교환학생을 하며 혼자서 유럽 여행을 다닐 수 있던 것도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유럽 여행은 처음인 저에게 교환학생의 신분으로 타국에서 거주하며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특별했고, 인생을 조금은 천천히 살아도 되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또한 향후 프랑스 워킹홀리데이도 계획중에 있습니다. 교환학생을 통해서 앞으로의 인생에서 도전적으로 살고 싶다는 의욕과 의지가 생겨 인생의 도전 앞에서 머뭇거리지 않을 용기를 얻은 것 같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바토무슈를 타며 에펠탑을 구경하는 모습입니다



불이 켜진 에펠탑과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파리 몽마르뜨 언덕 위의 사크레죄르 성당의 모습입니다



이탈리아 여행 때 피티 궁전 내부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여행 때 까사밀라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처음 프랑스 낭트역에 도착해서 찍은 사진입니다